

사실상 50년 만이다.

종교인 과세가 결정되자 불교와 천주교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일부 개신교계는 “법으로 과세를 강제하기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필요경비 범위 변경 내용을 적용하면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천 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평균 2만7천원이다.

그러나 과세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법 시행 전에 찬성과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법을 다시 고치자는 의견이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화재

■ 개요

2015년 문화재계의 최대 성과는 1천년 만에 속살을 드러낸 경주 월성(月城) 발굴이다. 월성 발굴 작업은 2014년 12월 시작돼 다양한 건물터와 굽다리접시, 등잔, 벼루, 막새기와 등 유물이 출토됐다.

아울러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월성 조사 현장을 직접 찾았다. 대통령의 문화재 발굴 현장 방문은 40년 만의 일로, 월성 발굴은 이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남북 역사학자들은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를 발굴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학계에서 논쟁이 이어진 ‘증도가자’는 다시 한 번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문화재청이 추진한 궁궐 숙박 체험 프로그램인 ‘궁 스테이’는 논란 끝에 무산됐다.

우리나라는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줄다리기, 한국의 유교책판·이산가족 생방송 기록물을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는 쾌거를 이룩했다.

■ ‘신라의 천년왕성’ 경주 월성 본격 발굴

삼국사기에 따르면 경주 월성은 신라 제5대 파사왕 22년(서기 101년) 봄에 축성을 시작해 그해 7월부터 왕이 거주했던 곳으로 신라가 멸망한 935년까지 궁성 역할을 했다.

월성 발굴조사는 1915년 일본 고고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처음 시행했고, 1979~80년 동문지를 조사해 해자 유구를 찾아냈다. 1985년부터는 1~5호 해자와 계림(鷄林) 북쪽의 건물터, 첨성대 남쪽 건물지, 월성 북서편의 건물터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월성 내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이뤄졌다. 시굴조사에서는 기단과 초석(받침돌), 적심(초석 밑 다짐돌) 등을 갖춘 건물지 6동과 담장 12기 등을 확인했다.

경주 월성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9월 7일 월성 발굴조사 현장

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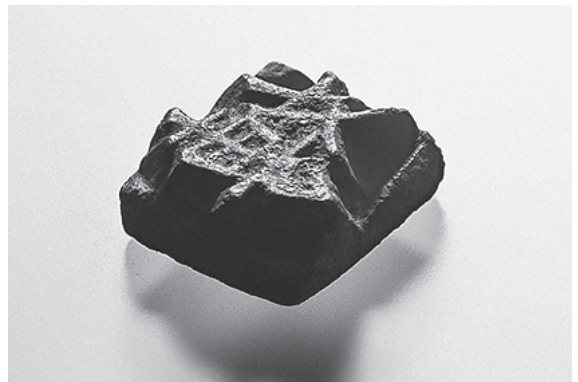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발굴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1975년 7월 3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퍼스트레이디를 대신한 자격으로 경주를 찾아 황남대총의 발굴 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다.

한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1월 30일 계림 맞은편에 있는 월성 해자 구간에서 개토제를 열고 시기별 축조 기법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에 돌입했다. 연구소는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자의 연결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내부 퇴적토 조사를 통해 지층이 쌓인 순서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자와 맞닿은 성벽의 안정성을 조사하고 해자 지형의 실측자료를 구축해 해자와 주변 지역의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남북 역사학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남북 역사학자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성 만월대 지역에서 제7차 공동발굴조사를 진행해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를 발굴했다. 이 금속활자는 11월 14일 만월대 서부건축군 최남단 지역 신봉문터 서쪽 255m 지점에서 출토됐다.



▲ 남북공동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에서 11월 14일 만월대 서부건축군 최남단 지역 신봉문터 서쪽 255m 지점에서 출토된 금속활자. (남북 역사학자협의회 제공)

개성 만월대에서는 1956년 금속활자가 발견된 이후 추가적인 출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2007~2014년 조사에서는 짧은 발굴 기간 등의 한계로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7차 조사에서는 금속활자 전담팀이 꾸려졌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표토 아래 20~30cm 지점에서 파낸 흙을 채로 쳐 거르는 작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활자를 찾게 됐다.

출토된 활자는 ‘女+專(전일할 전)과 유사하게 보이나 우방 아래쪽 자획이 ‘方(모 방)으로 보여 정확한 글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활자의 크기는 가로 1.35cm, 세로 1.3cm, 높이 0.6cm다. 글자 면을 제외한 몸체의 두께는 0.16cm다.

최광식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위원장은 “출토된 지역 등을 여러모로 검토해보면 만월대가 소실된 1361년 이전 것으로 고려 활자임은 분명하다”며 “다만 12세기 것인지, 13세기 것인지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려시대 추정 금속활자 외에도 19종의 건물지와 3천500여점의 유물이 나왔다. 주요 유물로는 명문평기와와 용문·봉황문·일휘문 등이 새겨진 막새기와, 장식기와로인 용두·잡상·치미 등이 나왔다. 청자는 고려시대 전 기간에 걸친 유물이 출토됐다.

■ 다시 불거진 '증도가자' 진위 논란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라는 주장이 제기된 '증도가자(證道歌子)' 논란이 다시 촉발됐다.

강태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사는 10월 31일 충남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증도가자로 추정되는 청주 고인쇄박물관 금속활자 7점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 연구사는 “고인쇄박물관 활자 7점에 대해 표면과 외관 검사, 성분 분석, 서체 비교, 직선도 검사, 투과 금속 밀도 검사 등 비파괴 분석을 시행한 결과 위조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조품으로 보는 근거로 “활자에 자연적으로 생성됐다고 하기 어려운 뚜렷한 경계선이 있고, 표면과 내부가 서로 다른 물질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활자는 먹을 인위적으로 씌운 것으로 보이며, 글자의 직선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증도가자'가 진품이라고 줄곧 주장해 온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11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서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국과수의 주장은 금속활자 주조방법, 문화재 보존과학, 서지학적 지식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나온 잘못된 해석과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남 교수는 이날 국과수가 증도가자를 위조품으로 추정한 근거인 활자의 부식과 성분비, 서체와 직진도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하지만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연구관은 “용역 보고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를 증도가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최근 갑자기 증도가자 논란에 휘말렸다”면서 “막연하게 서체가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증도가자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증도가자로 거론되는 금속활자는 모두 109개로 김종준 다보성고미술 대표가 101개,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7개, 국립중앙박물관이 1개를 갖고 있다.

문화재청은 6월 3개 분야 12명으로 이뤄진 '고려금속활자 지정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 준비에 나섰다. 또 경찰은 청주 고인쇄박물관이 소장한 증도가자 추정 금속활자의 출처,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 조선시대 조운선으로 판명된 태안 마도 4호선

2014년 충남 태안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고선박 '마도 4호선'이 한국 수중고고학 사상 최초의 조선시대 조운선(漕運船)으로 확인됐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5년 8월 26일 발굴조사 중간발

표에서 조선시대 관청 명칭이 적힌 목간과 분청사기 등 유물 300여 점이 발견됐고, 선박 구조가 견고한 점으로 미뤄 이 배가 조선 초기 조운선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운선은 지방 창고에 있던 조세미(租稅米)를 도읍에 있는 창고인 경창(京倉)으로 운반하던 선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고선박은 마도 4호선을 제외하면 13척이다. 그중 10척이 고려시대 배이고, 2척은 13~14세기 중국 선박, '영흥도선'으로 명명된 1척은 통일신라시대 배다.

선박 안에서는 글을 쓴 나뭇조각인 목간 60여 점이 나왔는데, 대부분 출발지인 나주와 종착지인 한양 광흥창을 뜻하는 '나주광흥창(羅州廣興倉)'이 적혀 있었다. 또 일부 목간에서는 곡물의 양과 종류를 의미하는 문자인 '두'(斗)와 '맥'(麥)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선내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대접과 접시 140여 점 중 3점에서는 조선시대 관청인 내섬시(內贍寺)를 뜻하는 '내섬'이라는 글자가 확인됐다. 내섬시는 궁궐에 바치는 토산물, 2품 이상 관리에게 주는 술과 안주 등을 담당하던 곳이다.

연구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도 4호선이 1410~20년대 세곡과 도자기를 싣고 나주에서 한양으로 향하다 마도 해역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11월 5일 발굴조사 최종 발표에서는 마도 4호선이 배에 쌍돛을 달고 쇠못을 사용한 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소는 선체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배 앞쪽과 중앙에서 돛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을 발견했다. 또 선체 좌우에 있는 판재를 연결하는 목재인 가룡(加龍)에 돛대를 고정하는 부속구인 당아뿔을 5개 설치했다는 점도 찾아냈다.

■ 덕종어보, 범어사 칠성도 등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는 일은 2015년에도 계속됐다.

미국으로 유출돼 시애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조선 덕종어보(德宗御寶)는 4월 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반환식을 통해 고국의 품에 돌아왔다.



▲ 4월 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덕종어보 반환식'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왼쪽부터), 기증인 가족인 프랑크 베일리(Frank Bayley), 키멀리 로샤흐(Ms. Kimerly Rorschach) 시애틀미술관장이 덕종어보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덕중어보는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이 세자 때 일찍 죽고 나중에 덕중이라고 추존된 아버지를 기리며 1471년 운문의경왕(溫文懿敬王)이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것이다. 덕중(1438~57)은 세조의 맏아들로 20세에 요절해 고양시 경릉에 묻혔다.

이 어보는 원래 종묘 영녕전 덕종실에 있었으나 유출됐으며, 스티븐슨이 1962년 미국 뉴욕에서 구입해 이듬해 2월 시애틀 미술관에 기증했다.

또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6월 3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진행된 한 옥션에서 1861년에 제작된 뒤 범어사 극락암(極樂庵)에 봉안됐다가 사라진 칠성도(七星圖) 3점을 7만8천500스위스프랑(한화 9천400여만원·경매수수료 포함)에 낙찰받았다. 칠성도 3점은 7월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돌아왔으며, 범어사는 다음날 경내 보제루 앞마당에서 귀환 법요식을 개최했다.

이어 7월 21일에는 문화재청이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 환수한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을 공개했다.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은 18세기 활동한 승려인 '동악당재인대선사'를 그린 초상화로 전남 순천 선암사 진영각(眞影閣)에 봉안돼 있었다. 동악당재인대선사는 정유재란 이후 피폐화된 선암사를 중창하고 승풍을 만드는 데 기여한 인물로 전해진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2012년 일본 쓰시마(對馬)섬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훔쳐 반입해온 '동조여래입상'을 7월 17일 일본에 인도했다.

■ 창덕궁 낙선재 ‘궁 스테이’ 논란

문화재청이 창덕궁 낙선재를 최고급 숙박시설로 꾸며 일반에 개방하는 ‘궁 스테이’를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사업을 포기했다.

문화재청은 6월 30일 창덕궁 낙선재 일대 석복헌과 수강재를 개조해 외국인 관광객 등이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덕궁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사적인 상황에서 석복헌과 수강재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면 문화재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화재청은 연내에 궁 스테이에 대한 계획을 짜겠다고 발표했지만, 문화재위원회에 현상 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역풍을 맞았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결국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문위 종합감사에서 “현상 변경을 하는 궁 스테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나 청장은 “국정감사 지적사항,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위원회 의견, 찬반으로 나뉜 여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궁 스테이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유산 8군데를 한데 묶은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가 한국의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7월 4일(현지시간) 독일 본 월드문화유산센터에서 개최한 제39차 회의에서 한국이 신청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등재가 확정된 지역은 구체적으로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등 2곳, 부여의 관북리 유적·부소산성과 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와 부여 나성 등 4곳,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2곳이다.

이로써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의 3건이 한꺼번에 처음으로 등재된 이래 지난해 남한산성에 이어 모두 12건에 이르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나아가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 중국 동북지방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합치면 한민족 관련 세계유산은 15건을 헤아리게 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해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사이의 교류 증거를 보여주며, 그 교류의 결과로 나타난 건축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보여주는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들 유적에 대해 전반적인 관광 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을 완성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고분 벽화와 내부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 줄다리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이 공동 신청한 줄다리기(Tugging rituals and games)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12월 2일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줄다리기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과 함께 인류무형문화유산 18건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등재된 한국의 줄다리기에는 영산줄다리기, 기지시 줄다리기 등 중요무형문화재 2개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4개가 포함됐다. 줄다리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농경문화권에서 농사에 필요한 비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자 놀이로서 널리 행해져 왔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4개국은 “줄다리가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문화권에서 행해지는 놀이로 공동체의 풍요와 안위를 도모했다”며 등재를 신청했다.

한편 무형유산위원회는 북한이 신청한 ‘김치 만들기’(Tradition of Kimchi-making)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김장문화’를 등재시킨 바 있어, ‘아리랑’에 이어 같은 주제를 두고 남북한이 모두 등재에 성공한 두 번째 사례가 됐다.

■ 한국의 유교책판·이산가족 생방송 기록물, 세계기 록유산 등재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목판인 '한국의 유교책판'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10월 9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는 10월 4~6일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아부다비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한국의 유교책판과 이산가족 생방송 기록물을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으며,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를 추진해 등재가 확정됐다.

한국의 유교책판은 305개 문중에서 기탁한 책판 718종 6만 4천226장으로 구성된다. 내용은 유학자의 문집, 성리학 서적, 족보·연보, 예학서(禮學書), 역사서, 훈몽서(訓蒙書·어린이를 위한 책), 지리지 등이다.

조선시대 유교책판을 만든 경북 지역의 지식인들은 문중, 학맥, 서원,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꾸려 '공론(公論)에 의한 공동체 출판'을 진행했다. 책판들은 현재 경북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KBS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생방송한 비디오테이프, 담당 프로듀서의 업무수첩, 이산가족이 작성한 신청서, 일일 방송진행표, 큐시트, 기념음반, 사진 등 2만522건의 자료를 포함한다. 전담인력 1천641명이 투입된 이산가족 생방송에는 사연 10만952건이 접수됐으며, 절반을 조금 넘는 5만3천536건이 방송에 소개돼 1만189건의 상봉이 이뤄졌다.

이번에 한국의 유교책판과 이산가족 생방송 기록물이 등재되면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13개로 늘어났다.

■ '유네스코 유산'으로 불붙은 한·중·일 역사전쟁

한국과 중국,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과 여론전을 펼쳤다.

일본은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인이 대규모로 강제 동원돼 혹사당한 장소 7곳을 포함한 산업유산 23곳을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 철강, 조선 그리고 탄광산업'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켰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본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 반영 방법을 두고 논의를 계속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마지막까지 협상을 거듭했다. 결국 양국은 강제노동 사실을 유산 등재 결정문 본문에 넣는 대신 '의사에 반해 끌려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는 문구를 일본 대표단이 성명서로 발표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일본 정부는 세계기록유산을 두고서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중국이 신청한 '난징대학살 문건'과 '위안부 자료, 일본제국 군대의 성노예'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극도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유네스코는 난징대학살만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했고, 위안부 기록물은 등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광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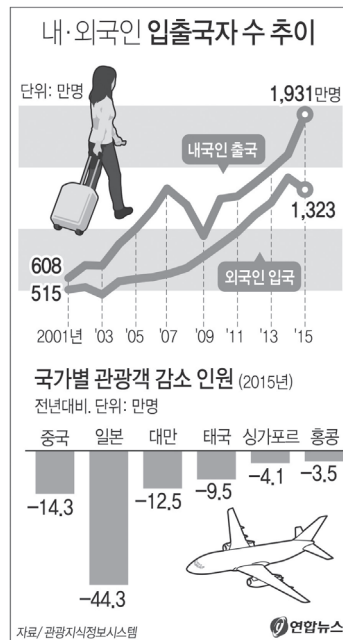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천323만1천651명을 기록하며 12년 만에 감소했다. 1~5월에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메르스 사태로 6~8월에는 관광객이 40%나 감소했다.

메르스로 줄어든 관광객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겨울에 하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여름으로 앞당겨 실시했다. 세일 조기 실시의 결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 매출은 직전 세일보다 2.5배 증가했다.

한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호텔이 들어설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기존 50m에서 75m로 넓히고 75m 이상 구역에는 제한 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북의 명동이나 광화문 등에 비즈니스 호텔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 외국인 관광객 12년 만에 감소



2015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2003년 이후 12년 만에 줄어들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천323만1천651명으로 2014년의 1천420만1천516명보다 6.8% 감소했다. 방한 관광객이 12년 만에 감소한 것은 6~8월에 있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 때문이었다.

2015년 1~5월에는 누적 관광객 증가율이 10.7%를 기록할 만큼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메르스 사태로 6~8월

에는 관광객이 40%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방한 관광객은 2015년 10월부터는 전년보다 약 5.0% 증가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5년 6~8월 방한 관광객이 줄어든 데에는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6월 방한 유커 수는 전년보다 약 45.1%, 7월에는 전년보다 약 63.0%, 8월에는 전년보다 32.2% 각각 감소했다. 이 때문에 2015년에 한국을 방문한 전체 유커 수는 598만1천70